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19	06. 26	07. 03
대 표 기 도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6월 축복인사 -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성도 간에)
 섬기는 자가 되자!(자신에게)

- 회중 찬송과 합심기도에 열심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6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나눔의 시간 - 정용현, 황희순 안수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스크 착용 -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입니다.
- 코로나 대응 -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영희 권사
득녀	Anna Jo(조정화, Markus Jo 가정)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185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장래황 성도
- 성경봉독 Predigttext 고전 15 : 12 - 19(신p282) ... 장래황 성도
(1.Korinther 15:12-19)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왜 기독교 이어야만 하는가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권사

† 기도제목

1. 주님을 향한 진지한 고백으로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 대학 입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 또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1)'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곳이어야 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또한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할 때 누군가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나눔은 단지 말 잔치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삶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반드시 물질의 나눔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삶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반드시 물질의 나눔을 포함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약 2:15~16)"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공동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함께 걷는 순례 / 이 훈 목사
(탈북공동체 미래희)

* 은혜는 선행을 베풀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주어진다. - Augustinus(중세 신학자)-